

“더 많이 일하고, 주는 대로 받는 노예처럼 살 수 없다”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5만명 모여 윤석열 정부 맹비난

“우리에게 노예로 살라고, 그렇게는 못 살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동자 권리 및 노동 기본권 신장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건설노조·학비노조 등 12개 노조는 지난 2일 낮 3시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72전국노동자대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이 총연맹 차원에서 처음으로 주도하는 대규모 집회다. 박근혜 정부 퇴진을 촉구하고 나선 2016년 민중총궐기 이후 최대 규모다. 경찰은 이날 모인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5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집회 관리에 120개 부대를 투입했다.

이날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물가 폭등·민생 대책 마련 ▲노동 계약 저지 ▲사회 공공 상·국가 책임 강화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오후 4시30분경 대회를 마치고 ▲송레론~서울역~삼각지 ▲대한문~서울역~삼각지 ▲서울광장~서울역~삼각지 등으로 나눠 도로를 이용해 행진에 나섰다.

단상 위에 오른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우리에게 노예로 살라고 한다. 더 많이 일하고 주는 대로 받으라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는 못 살겠다.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장 앞 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2022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 우리는 당당한 주인으로 살겠노라 모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양 위원장은 “재벌 부자들 편에서 노동자 민중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며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공공성을,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IMF 위기를 시작으로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를 거치는 동안 모든 고통은 노동자와 민중에게 전가되고 재벌들의 공간만 채워졌다”며 “비정규직 문제에 아무런 대책 없는 정부는 민영화, 민간위탁으로 비정규직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노동쟁점이 발효된 노동계약안 대로 초과노동을 하면 일주일에 최대 92시간을 일하게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과로사를 부추기는 노동계약을 중단하고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며칠 전 최저임금이 5% 인상됐지만 6%대 물가 상승률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은 삭감된 것과 다름없다”면서 “임금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취임 1호 결재는 ‘대기업·첨단기업’ 유치

작년 매출 3조 에스디바이오센서와 본사·연구소 이전 투자협약 체결



이재준 시장(오른쪽)과 이효근 대표가 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민선 8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취임 1호 결재는 진단키트 제조 등 체외진단 전문기업인 ‘에스디바이오센서’의 본사 및 연구소 이전 투자협약이었다.

3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이 시장은 에스디바이오센서와 민선 8기 첫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이 시장의 핵심공약인 ‘경제특례시’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협약에 따라 에스디바이오센서는 글로벌 연구·개발 센터를 수원시에 건립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7426.2㎡(약 2200평) 규모의 2개 필지 부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글로벌 진단 시약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2021년 매출액은 3조 원에 이른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 시장과 에스디바이오센서 이효근 대표, 박성진 상무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민선 8기 시장의 최우선 목표는 수원시를 경제특례시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협약은 수원시가 ‘기업친화도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협약식 후 멀티플렉스 입주기업인 심스바이오닉스를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회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심스바이오닉스는 미산성 차아염소산수 생성 장치, 친환경 소독제 등을 제조하는 업체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연이은 악재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이끌어주시는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의 중심에서 만나는 특별한 공간.

남산서울타워 전광판 광고

- 글로벌 랜드마크
- 방문객 연 1200만명
- 외국의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명소
- 국민들이 선호하는 여름철 관광지

문의 031) 268-8330

대기업과 한 몸 된 정부

기자의 창(窓)

정창규 사회부 부장

한 지원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얼마전 끝난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우체국택배노조의 파업시도 등 화물·물류계의 파업투쟁은 고유가로 인한 노동자들의 경제난이 얼마나 심한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총과 만난 자리에서 “물가 상승세를 완화할 수 있는 만큼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말해 노동자·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위 위원장 (“물가 상승으로 인한)고통을 국민이 감수하라는 것인가”라고 강도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아무리 대기업이 막대한 경제적 수익을 가져다 준다고 하지만 결국 그 수익을 내도록 실제적으로 일 한 것은 피땀을 흘리는 다수의 노동자이자 국민들이다.

노동자들이 멈추면 국가의 경제가 멈추고 국민들이 멈추면 국가 정부의 운명이 뒤바뀐다. 역사속에서 민생을 외면한 정부의 결말은 비참했던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과거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2030 청년들과 언론 등의 쓴소리에 “경청하고 문제점을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다. 자신과 정책을 비판한다고 발끈하기 보다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자·서민 입장에서 재고해 민생 정책을 하나라도 빨리 해결해야 이 깊은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다. 윤 정부가 노동자·국민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향후 정부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여러분의 ‘까도까도 넘치는 도전’을 응원합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 신앙중 학생 대상
온라인 학생주도 프로젝트 시범운영

‘까도까도 넘치는 도전’을 주제로 오는 8일까지 시범운영을 진행할 방침이다.

‘까도까도 넘치는 도전’은 학생주도 프로젝트인 ▲협력·참여하는 민주시민 ▲제로 플라스틱 지구와 친해지기과 체험학습인 ▲웹툰 작가 등 특강 ▲야외 감성 캠핑으로 구성된다.

구명서 원장은 “모든 과정을 학생의 시선으로 면밀히 살펴 제2학교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